



통영 달아공원

통영다움, 아름다움 _____

한 도시의 얼굴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꼬박 하루가 필요하다.
통영이 그러하다.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선정된 통영의
밤부터 문학·음악·그림이 춤추는 낮까지,
고성반도 끝자락 바다 마을의 하루를 담았다.



1 통영 밤바다를 조망하기 좋은 충무교
2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통영대교 야경
3 통영의 일몰 명소로 꼽히는 달아공원 일대

‘동양의 나폴리’ 통영을 넘어 ‘밤’도 아름다운 도시, 통영을 만난다. 통영은 지난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대한민국 제1호 야간 관광 특화도시로 지정됐다. 홍콩의 ‘십포니 오브 라이트’라든지 호주의 ‘비비드 시드니’에 버금가는 통영만의 야간관광 콘텐츠를 발굴해 국내 대표 야경 도시로 발돋움하는 것이다.

통영 야경 투어를 시작하는 장소로 달아공원만한 곳이 없다. 미륵도 해안을 일주하는 23km의 산양관광도로(산양일주도로) 중간 지점으로, 국내 최고의 일몰 명소 중 하나다. ‘달아’는 이곳의 지형이 마치 코끼리의 어금니와 닮았다고 해서 붙인 이름인데, 지금은 ‘달구경 하기 좋은 곳’이라는 의미로도 쓰여 뜻마저 낭만적이다. 바다를 보는 정자, 관해정(觀海亭)에 오르니 때마침 낙조가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다도해를 수놓은 크고 작은 섬이 꽃

이 돼 떠오른다.

통영 야경의 중심부인 통영대교(통영운하) 일대, 밤이 되면 통영해저터널부터 충무교~통영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1km에 달하는 거리가 무지갯빛으로 반짝이고, 데칼코마니처럼 투영되는 불빛이 밤바다에 넘실거린다. 통영대교 야경을 제대로 즐기 위해서는 충무교에 오르면 된다. 은은하게 빛나는 충무교 자체도 아름답지만, 시시각각 옷을 갈아입는 통영대교와 양옆으로 뻗은 통영해안로·미수해안로를 감상하기 제격이다.

통영대교를 뒤로하고 도보로 약 5분 거리, 통영해저터널 입구가 은은한 빛을 뿜낸다. 1932년에 만들어진 동양 최초의 바다 밑 터널로, 당시 통영 내륙과 미륵도를 연결하는 유일한 해

저를 가로지른다는 사실이 새삼 묘하게 느껴지고, 90년 넘게 통영을 지켜온 터널의 존재감이 묵직하게 다가온다.

눈이 호사를 누린 밤을 지나 예술에 취할 시간이다. ‘예향의 도시’라는 애칭에 걸맞게 대하소설 <토지>의 작가 박경리를 비롯해 시인 유치환, 음악가 윤이상, 화가 전혁림 등 수많은 예술가가 통영에서 활동했다. 통영대교를 건너 한국 현대문학의 어머니 박경리기념관으로 향한다. 박경리 선생을 기억하고 기리기에 이만한 공간이 없다. 작품과 생애를 기록한 공간은 물론, 통영 바다를 내려다보며 잠시 사색에 잠기기 좋은 공원과 그의 묘소까지 인접해 있다. 선생의 묘소로 올라가는 길, 우거진 나무 사이로 쪽빛 통영 바다가 수줍게 모습을 드러낸다. 소설 <김약국의 딸들>을 쓰며 통영의 이러한 풍경을 떠올렸겠지, 어림짐작해본다.



Travel Talk

| 디피랑(dpirang) |

강구안을 내려다보는 남망산에서는 야외 테마파크 디피랑(DPIRANG)을 만날 수 있다. 일반 미디어아트와 달리 남망산의 야외 지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 특징. 해가 진 이후인 오후 7시 30분(봄철 기준)부터 운영해 낮 관광을 마친 후 여유롭게 둘러보기 좋다. 디피랑 일대는 통영 바다와 시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 포인트이기도 하다. 강구안을 수놓은 도시의 반짝이는 빛과 이를 오롯이 품은 통영 바다의 아름다움을 눈에 담아보자.

Flavours of Tongyeong

먹고 추억하라

원조밀물식당



봄이 오면 통영에선 명게를 반드시 맛보야 한다. '바다의 꽃'으로 불리는 통영 명게는 달콤하면서도 고소하다. 숙성한 명게에 별다른 양념 없이 참기름만 휘~ 둘러 비벼 먹어도 맛있다. 맑은 국물이 당긴다면 도다리썩국, 갈치호박국, 물메기탕 등을 추천한다.



경상남도 통영시 중앙시장1길 8-42
055-643-2777

대풍관



통영 '찐' 토박이 사이에서도 소문난 통영 대표 굴 요리 전문점. 겨울에는 싱싱한 굴 요리를, 여름에는 제철 해산물과 명게비빔밥을 맛볼 수 있다. 세트 요리를 시키면 물회·굴무침·굴해물전·모듬 튀김·해물된장찌개·고막비빔밥 등 푸짐한 해물 한 상이 차려져 눈과 입 모두 즐겁다.



경상남도 통영시 해송정2길 29
0507-1325-4446

카페 배양장



수년간 명게를 배양하던 곳을 카페로 개조했다. 작은 어촌마을에 위치해 카페 앞 바다가 오롯이 내 것이 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무거운 문을 밀고 들어가면 높은 천장과와 네모반듯한 통창이 분위기를 압도한다.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함박길 5
0507-1323-6330

Under the Sea

영양 가득 우리 수산물

창원



입안에서 톡! 터지는 '미더덕'
창원 진동만의 특산물인 미더덕은 독특한 향과 씹히는 맛이 일품이다. 창원에서 미더덕이 가장 맛있는 4~5월, 껍질만 살짝 벗겨 횡감으로 먹는데 입안에서 퍼지는 향기에 행복감마저 느껴진다. 또한 미더덕찜은 아귀찜과 함께 창원의 향토 음식으로 유명하다.

통영시

바다 맛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명게비빔밥'
국내 명게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통영은 곳곳이 양식장이다. 명게젓갈을 서너 조각 밥 위에 얹은 후 참기름, 깨소금, 김 가루 등을 곁들여 쓱쓱 비비는 명게비빔밥은 통영에서 맛볼 수 있는 별미. 일반 비빔밥에 비하면 단촐해 보이지만 적당히 숙성한 명게젓갈이 뜨끈한 밥알 속으로 스며들면 배길 맛이 없다.



고성군

오독오독 즐거운 맛 '오만동이'
오돌토돌한 돌기가 불규칙적으로 돌아 있는 오만동이는 미더덕에 비해 껍질이 두껍지만 더욱 부드럽고 쫄깃해 껍질째 먹는다. 씹는 맛이 좋아서 초무침이나 볶음으로도 먹고, 다양한 찜이나 찌개류에 넣어 먹기도 한다. 오만동이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노화 방지와 항암 효과가 있으며 불포화지방산이 높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도 좋은 고성의 대표 먹거리다.



울산광역시

차지고 고소한 자연산 '참가자미'
양식이 안 돼 자연산만 존재하는 참가자미를 울산에서는 최고의 횡감으로 꼽는다. 참가자미는 맛도 맛있지만, 영양 면에서도 최고를 자랑한다.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동맥경화 예방에도 효과가 있으며, 비타민 A가 풍부한 참가자미 알은 피부를 부드럽게 해준다.



부산광역시

타닥! 타닥! '곰장어' 익어가는 소리
겨울철이 되면 부산은 곰장어(역장어)의 횡감을 만드는 칼질 소리와 숯불에 곰장어를 굽는 연기가 자욱하다. 맵싸한 양념을 발라 숯불 위에 얹은 곰장어가 꿈틀꿈틀 익어가며 허골을 자극하면 소주잔 부딪치는 소리는 더욱 활기차다. '곰장어'로 널리 통용되는 '먹장어'는 단백질이 풍부해 원기 회복에 최고의 음식이다.



생동하는 자연과 만나다

동해안을 따라 위는 포항, 아래는 부산과 닿는 울산. 철옹성 같은 관광도시 사이에 있는 울산은 산업 도시로 더 이름났다. 하지만 얼마나 매력적인 여행지인지 이내 알게 될 것이다. 태화강 국가정원은 전남 순천만에 이어 두 번째로 국가정원이 됐다. 생명이 떠난 강을 살리려 시민이 힘을 모은 지 10년 만에 1급수가 됐다. 울창한 대숲, 철마다 피어나는 색색의 꽃은 마음을 상쾌하고 화사하게 만들어준다. 대왕암에 닿으려면 1만5,000여 그루가 모여 있는 송림을 지나야 한다. 송림을 벗어나면 탁 트인 해안 절벽으로 불그스레한 공룡 화석들이 푸른 바닷물에 얹드려 있는 듯한 장엄한 경관이 펼쳐진다. 대왕 암은 하늘로 웅솟음치는 신비로운 용의 모습 그대로다. 최근 이곳에 출렁다리가 놓여 비경을 스릴 있게 즐길 수 있게 됐다. 고래의 고장 울산울산을 느껴보고 싶다면 장생포 고래문화특구를 방문하는 것도 좋다.



수험 안내

울산수험
052-268-8001~6
방어진위판장
052-251-1645





동남횃집



울산의 오래된 물회 맛집이다. 우선 물회의 양이 푸짐하다. 맛있는 기본 반찬이 다양하게 나오고, 소면과 밥은 무한 리필이다. 신선도는 물론 상큼 새콤한 맛이 일품이다. 스페셜 물회에는 회, 전복, 해삼, 소라, 멍게가 들어간다. 우럭구이, 우럭매운탕도 훌륭하다.

☎ 울산광역시 동구 보밀길 75
☎ 052-251-6360

산너머남촌



통통한 코다리와 강원도 양구 편치불 시래기가 조화로운 맛을 낸다. 시래기와 코다리의 식감도 질기지 않고 아들아들 부드럽다. 푸짐한 양에 자극적이지 않은 단짠 양념이 자연스럽게 밥을 부른다. 바다를 바라보며 여유로운 식사가 가능하다.

☎ 울산광역시 동구 동해안로 596
☎ 052-252-4625

해강



매일 공수하는 신선한 해산물을 주문 즉시 요리해 제공하기 때문에 재료 각각의 고유 맛을 느낄 수 있다. 대표 메뉴인 해물통점은 랍스터, 대하짬, 가리비짬, 전복문어짬, 제철조개짬, 해신탕으로 구성되는데, 맛이 신선하고 양도 푸짐하다. 서비스 또한 세심하다.

☎ 울산광역시 동구 화잠로 106-1
☎ 052-252-4625



간절곶 해맞이 행사

'간절곶에 해가 떠야 한반도에 새벽이 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울산 간절곶은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새해 첫 일출을 볼 수 있는 여행지다.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대송리 28-11
☎ 울주문화재단 052-980-2200



울산 고래축제

고래를 직접 찾아 나서는 고래바다여행선, 고래의 역사를 담은 고래박물관, 돌고래를 볼 수 있는 고래생태체험관 등 전국 어디에도 없는 다양한 고래 인프라가 준비되어 있다.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44 고래문화특구
☎ 고래문화재단 052-226-1999

울산 조선해양축제

조선산업의 도약을 기원하는 축제로 매년 울산 동구 일산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린다. 빙어 잡기, 모래조각전, 핀수영 대회 등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체험과 공연을 즐길 수 있다.

☎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일산해수욕장 일대
☎ 울산조선해양축제추진위원회 052-267-2748



바다 내음이 진한 멸치 대풍의 고장

산천에 초록빛이 감돌고 바닷물 온도가 높아지면, 부산 기장군의 대변향은 멸치잡이가 한창이다. 그 물 가득 큰 멸치들이 들기 시작하면, 은빛 멸치들이 펄펄 날아오르는 광경을 볼 수 있다. 기장 멸치는 청정한 수질과 빠른 물살로 멸치의 운동량이 많아 맛이 좋기로 유명하다. 멸치 산지답게 싱싱한 멸치 회를 맛볼 수 있다.

해동용궁사는 산과 바다가 맞닿은 육지 끝자락에 위치한 해안 사찰이다. 고려시대 공민왕의 왕사였던 나옹 선사가 창건했다. 절에는 자애로운 미소의 해수관음불을 비롯해 소원을 이루게 해준다는 12 지신상, 진신사리탑, 108계단 등이 있다. 경내 전체가 바다에 닿아 있어 서 있는 모든 곳에서 '인생샷'을 남길 수 있다. 한적하지만 알찬 부산 여행을 하고 싶다면 기장이 딱이다.



수협 안내

기장수협
051-722-1905
대변위판장
051-721-2004

부산 기장군



죽성성당
©부산광역시



해동용궁사



방파제횃집



멸치로 유명한 기장군 해변에서 맛보는 멸치 회와 멸치찌개. 새콤달콤한 멸치회와 비리지 않고 자극적이지 않은 멸치찌개 전문점이다. 멸치찌개만도 좋지만, 기본 반찬으로 나오는 씬들과 멸치젓갈을 곁들여 먹으면 별미다. 내부도 깨끗하다. 제철 멸치는 꼭 맛보길 추천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대변2길 1
☎ 051-721-6155

한어부의 고등어사랑



현지인들이 최우선으로 손꼽는 곳. 살아 있는 고등어를 바로 잡아 신선한 맛 그대로다. 다양한 회 종류와 구이, 조림 등 가격대별로 선택의 폭도 넓다. 비린내 없이 고등어의 고소한 맛과 쫄깃한 식감을 음미할 수 있다. 화덕에 구운 두툽한 고등어는 껍질이 바삭바삭하며, 살은 촉촉해 맛이 일품이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594번길 5
☎ 051-746-9092

하진이네



바다를 바라보며 맛보는 조개구이집. 조개구이를 버터와 고추, 양파, 팽이버섯 등과 함께 먹는다. 소스를 조개 위에 얹어 먹는 방법, 치즈를 녹여 먹는 방법 등 다양하다. 조개구이 이후 약해진 연탄불에 장어를 구우면 타지 않아 맛있게 먹을 수 있다. 후식으로 라면을 주문해 조개와 먹는 것도 별미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사포로 151
☎ 051-702-4092



기장 멸치축제

제철 만난 봄 멸치가 건강과 행복을 전하는 멸치축제는 4월 하순 기장읍 해변항 일원에서 펼쳐진다. 해상 퍼레이드, 멸치 기네스 등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주는 축제다.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해변항 일원
☎ 기장멸치축제추진위원회 051-721-4063



기장 갯마을축제

소설가 오영수 선생의 <갯마을>과 1965년에 제작된 김수용 감독, 신영균·고은아 주연의 영화 <갯마을>의 배경이 된 기장군의 대표적 순수 문화축제다.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삼성리 일광해수욕장 일원
☎ 기장갯마을축제추진위원회 051-723-2219

기장 봉장어축제

매년 10월 말 기장읍 신암항과 일광면 칠암항 일원에서 번갈아가며 개최된다. 봉장어 경매, 봉장어 이어달리기, 기장 봉장어 창작식품대회 등 다양한 즐거움이 있다.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칠암항 / 신암항 일원
☎ 해양수산과 051-709-4524



대한민국 최고의 해양 도시

'부산' 하면 바다, '바다' 하면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의 즐길 거리는 너무나도 풍성하다. 여름, 해운대를 찾는 인파가 100만 명이 넘을 만큼 전 국민의 휴양지로 사랑받고 있다. 해운대해수욕장 남쪽 끝에 있는 동백섬은 울창한 동백나무와 소나무가 절경을 이룬다. 오솔길을 따라 한갓지게 산책할 수 있다. 바다를 가로지르는 광안대교는 아름다운 야경을 자랑한다. 레이저 쇼, 드론 라이트 쇼를 감상할 수 있으며, 부산 불꽃축제도 이곳에서 성대하게 열린다. 광안대교와 해운대를 색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어 아는 사람만 간다는 이기대 해안산책로. 밤에는 황홀한 야경도 만날 수 있다. 화끈한 볼거리가 가득한 부산은 어디를 가나 생기와 활력이 넘친다. 휴양, 관광을 모두 아우르는 만능 여행지에서 오로지 즐길 준비만 하면 된다.



수협 안내

부산시수협
051-254-9935
자갈치위판장
051-245-8642
경남정치망수협
051-254-8631
대형기선저인망수협
051-250-2473

대형선망수협
051-254-9012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
051-254-7891
제1·2구잠수기수협
051-243-9565



Taste
바다 한 상 眞맛집
✂

양지식당



대표 음식은 아귀수육이다. 아귀는 수육으로 조리했을 때 비린내를 잡기가 어려운 어종으로도 유명하다. 하지만 이곳의 아귀수육은 비린내 전혀 없이 쫄깃한 식감, 담백한 향과 맛을 선사한다. 아귀수육을 특제 소스에 찍어 먹는 맛, 어디서도 만날 수 없는 감동이다.

☎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119번길 31
☎ 051-242-0587

부산명물횃집



60년 이상 2대째 운영되고 있는 횃집. 부산시에서 지정한 부산 향토 음식점 3곳 중 하나다. 일본식 선어회를 전문으로 하는데, 활어회가 아닌 숙성시킨 선어회 전문이다. 회를 뜨고 남은 도미와 광어 뼈를 우려낸 국물, 비린 맛이 없고 시원한 생선뽕국 또한 별미다.

☎ 부산광역시 중구 자갈치해안로 55
☎ 051-245-4995

여가복



매일 공수한 일등 재료만 사용해 북요리의 맛 그대로를 느낄 수 있는 아담하고 아늑하며 편안한 곳이다. 북어의 빛이 살아 있으며 부드러운 맛이 일품이다. 기본 반찬이 과하지 않아 정갈하다. 인테리어 또한 어느 북어 전문점들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 14
☎ 051-853-0329

Editor's Choice
두고두고 추억이 될 즐길 거리
⚓



해운대블루라인파크

해운대의 수려한 해안 절경을 해변열차와 스카이캡슐을 통해 즐길 수 있다. 미포에서 청사포를 지나 송정에 이르는 4.8km 구간으로 동해남부선 옛 철도시설을 친환경적으로 재개발한 관광시설이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사포로 116 청사포정거장
☎ 해운대블루라인파크 051-701-5548



부산 자갈치축제

매년 10월 축제가 열리는 기간에는 수산물 감짜 경매, 맨손 물고기 잡기, 장어·문어 이어달리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와 문화예술 공연, 불꽃 쇼 등을 즐길 수 있다.

☎ 부산광역시 중구 자갈치해안로 52 자갈치시장 일원
☎ 부산자갈치문화관광축제위원회 051-243-9363

부산 고등어축제

부산 고등어축제는 국내산 고등어의 90% 이상을 위판하는 부산공동어시장이 위치한 부산의 특성을 활용해 개최되고 있다. 송도해수욕장에서 매년 10월 중에 만나볼 수 있다.

☎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송도해수욕장
☎ 서구문화원 051-231-4085



바다 앞 꽃대궐 마을

봄날의 진해는 벚꽃 천지다. 어디를 가나 벚꽃이 반기는 진해에서도 유명한 곳은, 역시 경화역과 여좌천이다. 폐역이 된 곳에는 건물도 없이 철길만 남았으나, 철길 옆으로 늘어선 벚나무에서 떨어지는 새하얀 꽃비를 맞을 수 있다. 진해 시내를 가로지르는 여좌천에는 벚나무가 하늘에서 맞닿아 꽃 터널을 만들어준다. 제황산공원에 올라 진해탑에서 '꽃대궐'을 내려다보는 것도 좋다.

진해 남쪽의 작은 섬 음지도, 진해해양공원에 높게 솟은 해양솔라타워는 국내 최대 규모, 최고 높이의 태양광발전 시설이다. 진해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 이곳은 120m 위에 설치된 원형 전망대, 북 카페와 전시장도 갖추고 있다. 공원에 조성된 해안산책로는 어른 마을이 자리하고 있는 우도까지 이어진다.

여행 코스

장복산 조각공원

진해내수면
환경생태공원

여좌천

제황산공원

Travel Tip

제황산 모노레일은 오전 9시부터 2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쉽고 편하게 진해탑이 있는 제왕산 정상에 오를 수 있다.

경화역 벚꽃길

진해해양공원

수협 안내

진해수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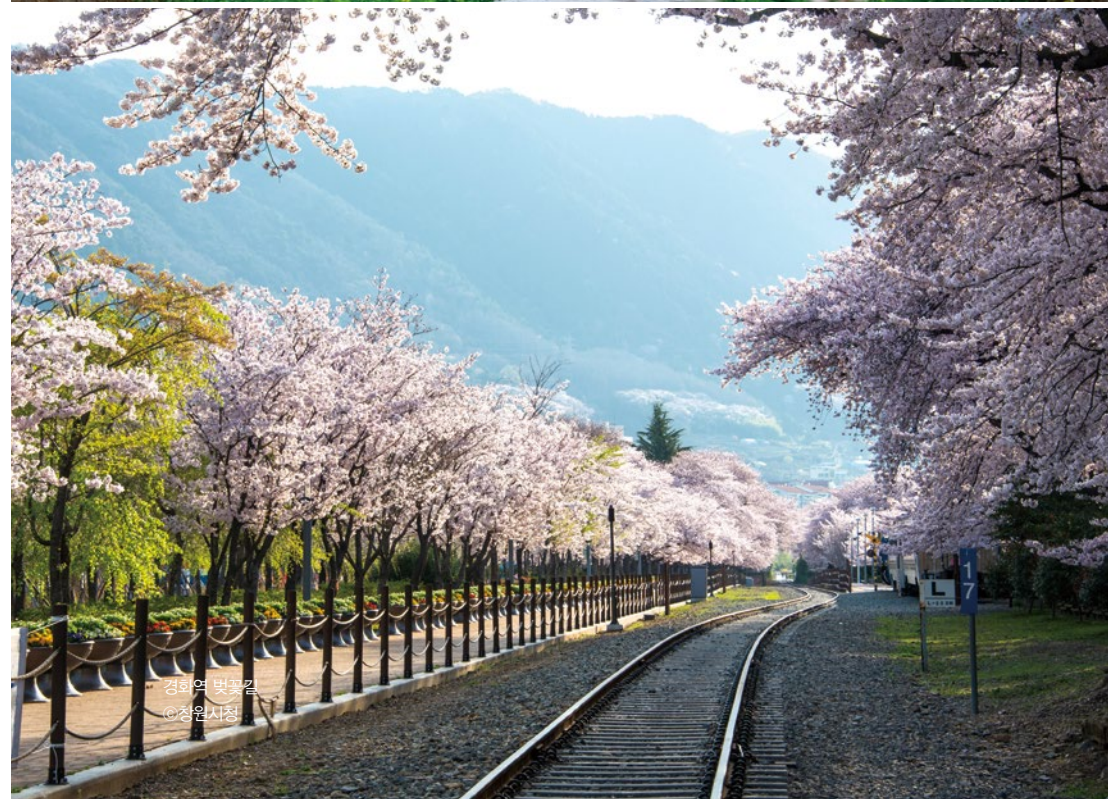
055-543-7004~6

수산물직매장

055-546-5262

숙천위판장

055-545-0774





대섬횃집



1981년 문을 연 진해를 대표하는 오래된 맛집. 매일 진해만 앞바다에서 잡은 최고의 재료만 고집한다. 주인장이 직접 개발한 장어보쌈은 장어를 튀기고 구운 뒤 한약재를 쌈 채소로 내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대표 메뉴다. 진해 바다 저녁노을을 보는 맛도 환상적이다.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행암로 229
☎ 055-551-4221

머구리



매일 새벽 산지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조개를 사용하는 진해 조개구이 맛집이다. 신선함을 맛으로 느낄 수 있다. 가족이 운영하는 곳으로 정직함을 고집하며, 양념이 환상적이다. 서비스 역시 훌륭하다.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445번길 20-1
☎ 055-543-7122

잠도



진해 속천의 맛집. 잠도(섬)에서 직접 재배한 채소로 밑반찬을 만들고, 생선은 매일 진해수협 위판장에서 공수해 신선도가 뛰어나다. 여기에 주방장의 솜씨가 맛으로 이어지고, 화학조미료를 쓰지 않아 마치 집밥처럼 자극적이지 않은 맛을 느낄 수 있다. 저렴한 점심 정식도 훌륭하다.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속천로 71-1
☎ 055-547-1133



진해만 싱싱 수산물축제

진해수협 속천위판장에서는 9월이면 '진해만 싱싱 수산물 축제'가 열린다. 축제에서 진해만 대표 수산물인 전어와 피조개를 맛볼 수 있다.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태평로 143 속천위판장
☎ 진해수협 055-543-7004



진해드림파크 목재공예체험

뒤로는 난대림 자생지 생태숲, 앞에는 진해만의 황홀한 바다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진해드림파크에서 목재 공예를 경험할 수 있다. 장난감, 장반, 좌탁, 옷걸이, 책장 등 수준별 체험이 준비되어 있다.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천자로 507
☎ 진해드림파크 목재문화체험장 055-548-2687

진해웅천도요지 도예체험

조선시대에 분청사기와 백자 등을 제작했던 가마터다. 발굴된 도자기 유물을 관람하고 직접 만들어볼 수 있는 도예 체험을 해볼 수 있다.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두동도로 198
☎ 진해웅천도요지전시관 055-225-6859



역사 깊은 항구에서 즐기는 여행

100년이 넘는 역사가 있는 마산항. 마산, 진해, 거제도 일대에서 잡히는 수산물들이 이곳으로 모인다. 조선시대에도 지리적 이점과 풍부한 어종으로 3대 수산물 집산지로 불렸던 마산포. 당시 마산포에서 열리던 마산장의 전통을 이은 곳이 바로 마산 어시장이다. 무궁해 청정 해역인 남해안에서 갯 잡은 선어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으며, 건어물과 젓갈을 골라 사는 재미가 있는 곳이다.

마산 앞바다에 조그맣게 떠 있는 돌섬은 섬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마치 돼지가 옆으로 누워 있는 모습과 닮았다고 해 붙은 이름이다. 최근에는 '황금돼지섬'이라는 별명으로 복을 가져다주는 행운의 섬으로 소개되고 있다. 해안산책로를 따라 섬을 걷다 보면 푸른 바다를 오뎅이 느낄 수 있다.

여행 코스

의림사계곡



무학산



돌섬



Travel Tip

봄의 무학산은 진달래 군락이 어우러져 절경을 연출한다. 정상에 오르면 남해 바다와 돌섬, 진해의 장복산을 볼 수 있다.



마산항



마산 어시장



수험 안내

마산수험

055-246-0025~7

마산위판장

055-249-5153

패류살포양식수협

055-244-1802

저도 연륙교
©창원시청마산항
©창원시청



가포옛날영도집



3대를 이어온 마산의 오래된 맛집으로 장어가 구워진 상태로 나온다. 신선한 장어를 사용해 비리지 않고 담백한 맛을 낸다. 밑반찬은 깔끔하고 상추, 깻잎, 당귀 등의 쌈 채소도 장어와 잘 어울린다. 양념구이와 소금구이 반반 주문도 가능하다.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해안길 37
☎ 055-246-9294

맛고을식당



오래된 현지인 맛집으로 더욱 유명한 곳이다. 제철에 나는 신선한 재료를 마산수협 공판장에서 공수해온다. 대표 메뉴인 개조개된장은 개조개가 가득 들어 있는 된장을 밥에 비벼 먹으면 그야말로 밥도둑이 따로 없다. 양념장어구이 정식에는 국물이 진한 장엇국이 함께 나와 보양식이기도 하다.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동로 9-1
☎ 055-245-9923

명태본가



콩나물, 샐러드, 돌김, 미역국 등이 기본 반찬이다. 특별해 보이지 않지만, 맛을 보면 생각이 달라진다. 돌김에 명태, 아삭한 콩나물, 양념 고추를 올려 먹으면 말 그대로 환상적인 맛이다. 명태도 부드러워 좋지만, 매운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소스 맛도 일품이다. 미역국과의 조합도 훌륭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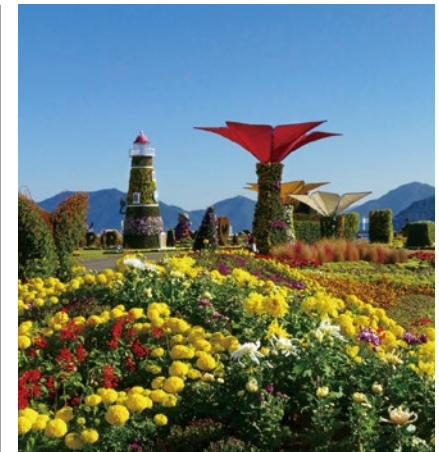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광려천북로 198-2
☎ 055-232-9023



마산 어시장축제

매년 9월, 어시장 일원에 주 무대와 이동 무대, 장터가 만들어지면서 어시장 축제가 시작된다. 대형 회무침 만들기를 비롯해 다양한 즐길 거리로 마산의 수산물을 널리 알리고 있다.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북요리로 7
☎ 마산어시장상인회 055-224-0009



마산 국화축제

국화 재배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한 축제로 매년 마산가고파 수산시장 장어거리 앞, 창동·오동동, 돌섬 일원에서 개최된다. 축제 기간 중 수산물 먹는 날을 진행하며 체험 행사도 마련된다.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포동 1-79
마산해양신도시
☎ 관광과 055-225-2341

봉암갯벌 생태학습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이루자는 목적으로 조성한 갯벌 및 해양환경 학습 장소이자 휴식 공간이다. 생태학습관과 갯벌에 서식하는 생물을 관찰할 수 있는 지하 관찰시설 등이 있다.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 19-3
☎ 봉암갯벌생태학습장 055-251-08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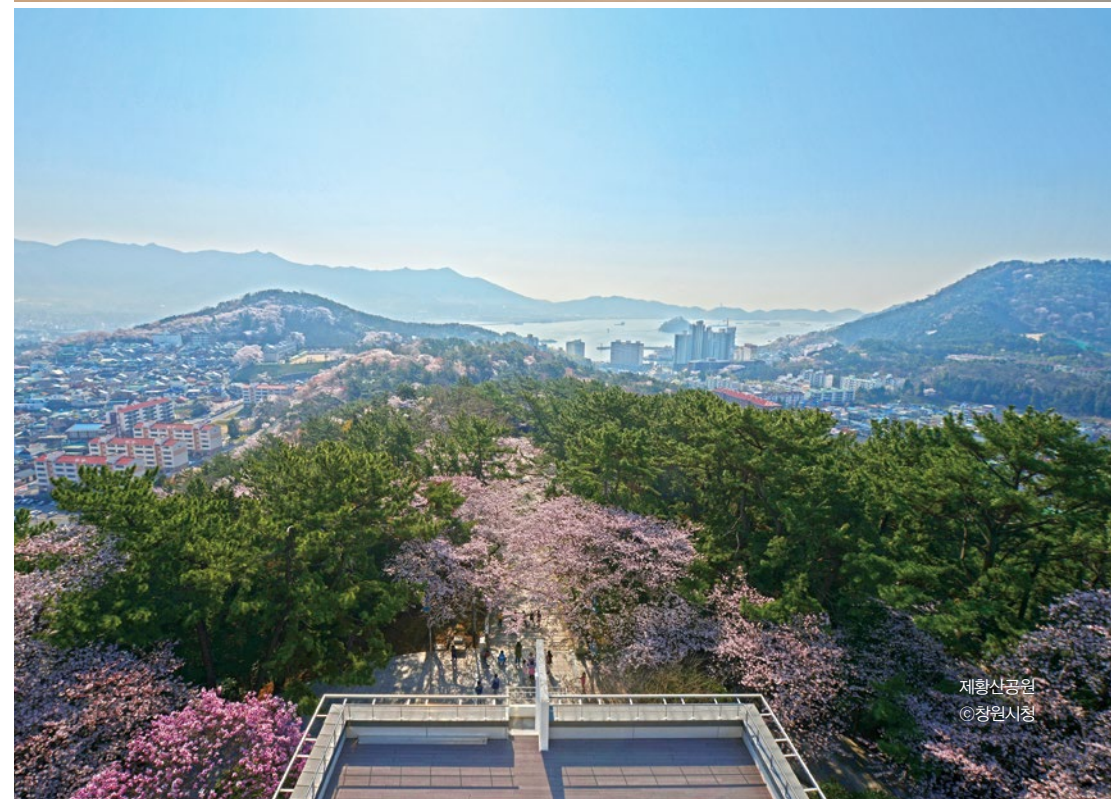
매력 세 배의 도시로 거듭나다

2010년 창원, 마산, 진해가 합쳐져 탄생한 창원시.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가 세 배로 넉넉해졌다. 낙동강이 굽이굽이 먼 길 가다 창원을 지나는 구간에 배후습지가 생겨났다. 개발과 보전, 두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운 끝에 현재 주남저수지는 수만 마리 철새가 계절을 안전하게 나는 보금자리로, 탐조객에게는 귀한 새를 관찰하는 명소로 자리 잡았다. 물안개 피어오르는 새벽이나 노을 지는 무렵의 저수지는 몽환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로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는다. 람사르문화관과 생태학습관에서는 주남저수지의 사계를 살펴보고 건강한 생태계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다. 주변 바다 경관과 어우러진 범선 모양을 한 에너지전시관은 대체에너지의 원리와 쓰임을 설명하는 전시실, 체험 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협 안내

창원서부수협
055-271-0571~2





숙성참치 단



흔히 만나기 어려운 숙성 참치의 배꼽살, 참다랑어 뺏살 등 다양한 부위를 맛볼 수 있는 곳이다. 직접 만든 타코 와사비 소스와 해삼 내장 소스, 참치 내장 젓갈 등 다른 곳에선 볼 수 없는 다양한 소스를 찍어 먹는 재미까지 있다. 참치의 깊은 맛을 원한다면 추천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64번길 1
☎ 055-543-8266

미가원



매콤함이 입맛을 돋우는 이색적인 아귀불고기를 맛볼 수 있다. 아귀를 불고기 형식으로 요리했는데, 불고기 양념이 맵고 독특하다. 아귀 살은 통통하고 부드러워 입에서 살살 녹는다. 아귀수육과 내장수육도 대표 메뉴 중 하나다.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봉곡로 115번길 2
☎ 055-262-6693

돼지조개



조개가 가득 든 해물탕을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이다. 전복, 가리비, 키조개, 비단가리비, 바지락, 홍합, 오징어, 꽃게, 개조개, 석화, 피조개 등 계절마다 다른 해물들이 들어가 사시사철 색다른 맛을 볼 수 있다. 주인장의 가족 모두 어시장에서 도매 일을 해서 매일 신선한 해물이 공급된다.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473번길 20-3
☎ 055-282-2254



창원 진동미더덕&불꽃낙화 축제

전국 미더덕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진동 미더덕을 알리는 축제로 매년 4월 중순 진동면 광암항 일원에서 개최된다. 전통 장터와 풍어 제례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광암항 일원
☎ 진동면청년회 055-220-5093



창원 집트랙

99타워에서 소쿠리섬까지 1,399m를 최대 시속 80km의 속도로 질주하는 아찔한 공중 비행을 경험할 수 있으며, 돌아올 때는 바다 위의 슈퍼카 제트보트로 되돌아온다.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명동로 62 99타워(진해해양공원)
☎ 창원 집트랙 055-1855-0999

고현 어촌체험

전국 최고의 미더덕 생산지로 유명한 고현. 이곳에서는 직접 미더덕 잡기를 체험할 수 있다. 바다낚시, 갯벌 체험, 원시 해수 온천탕 등 체험할 거리가 가득하다.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미더덕로 358-163
☎ 고현어촌체험마을 055-271-8579



남해안의 절경을 간직한 섬

거제도는 깨끗한 남해 바다를 품은 섬이다. 섬들이 다시 섬을 둘러싸고 있어 비경이 빼어나다. 우리나라에서 제주 다음으로 큰 섬으로, 거가대교가 개통돼 배를 타지 않아도 섬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하늘과 바다 그리고 바람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풍경화가 자리하고 있는 곳. 바람의 언덕은 도장포 마을 북쪽에 있는 바닷가 언덕이다. 아낙네들이 바다로 나간 남편을 기다리던 언덕은 2009년 11월, 풍차를 조성해 관광 명소로 거듭났다. 탁 트인 바다, 초원 같은 언덕, 언덕배기의 풍차, 세 가지 매력이 공존하는 휴식처다. 거센 바람이 가슴이 뻥 뚫리는 통쾌함을 선사한다. 풍차 왼쪽에 난 산책로를 따라가다 보면 풍차, 도장포 마을, 비취색 남해까지 시야에 꽂 찬다.



수협 안내

거제수협

055-682-4170

장승포위판장

055-628-4172

수협호시공원

055-639-8340

바람의언덕
©거제시해금강 일출
©거제시

Taste

바다 한 상 眞맛집



거제보재기집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씬이다. 바다를 바라보면서 싸 먹는 물회를 경험할 수 있다. 육수와 별도로 나오는 회를 비벼 씬으로 먹은 후, 육수를 붓는다. 물회 육수가 자극적이지 않고 물회, 씬, 국수 등 다양하게 먹을 수 있다.

☎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해안로 175
☎ 055-682-0111

장수굴국밥



1년 내내 100% 거제산 생굴을 사용한 굴국밥을 맛볼 수 있다. 거제는 굴이 자라기에 천혜의 조건을 갖춘 곳으로 굴의 맛과 향이 풍부하다. 굴국밥에 사용되는 굴의 크기도 통통하고, 양도 많아서 푹배기에 가득하다. 거제 굴의 시원하고 깔끔한 맛을 원한다면, 꼭 찾아가야 할 곳이다.

☎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성안로 59
☎ 055-688-0963

몽돌밭횡집



자연산 회, 멧게비빔밥, 성게비빔밥, 대구탕 등을 맛볼 수 있다. 특히 싱싱한 회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한데, 직접 바다에서 잡아온 자연산 회만 취급하고 있어 회 맛 좀 아는 이들로 문전성시를 이룬다. 주인장만의 노하우로 만든 초장이 맛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일조한다.

☎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간곡길 58
☎ 055-636-9055

Editor's Choice

두고두고 추억이 될 즐길 거리



거제 대구 수산물축제

싱싱한 대구를 판매하는 커다란 장터가 서고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어업인만의 축제가 아닌 거제시 전체 축제로 승화시켜 지역 수산물 축제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외포항 일원
☎ 수산과 055-639-4273



바다로 세계로 축제

매년 7월 말~8월 초순에 개최되는 '바다로 세계로'는 천혜의 관광자원과 문화예술 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해양 축제다.

☎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항 수변공원
☎ 관광과 055-639-4163

다대 어촌체험

전통어업 체험과 갯벌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제6회 우수 어촌체험마을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어촌체험마을로 선정됐다.

☎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다대1길 6
☎ 다대어촌체험마을 055-634-0060



하늘과 바다가 만나는 섬

부산 서남단 끝에 위치한 가덕도, 부산에서 가장 큰 섬으로, 2010년 가덕대교가 개통하기 전에는 뱃길로 오갔지만, 현재는 차로 갈 수 있다. 바닷길을 통해서 찾을 수 있던 시절의 낭만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가덕도는 아름답다. 가덕도는 연대봉과 국수봉을 중심으로 섬 대부분이 산지다. 그중 연대봉은 가덕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로, 수려한 섬의 풍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곳이다. 사방에 거칠 것 없이 시야가 트여 있어, 외양포 마을과 대항항은 물론 가덕해저터널과 거가대교의 모습도 한눈에 보인다.

정거마을은 가덕도 옆 눌차도에 있는 해안가 마을로, 모퉁이를 돌면 금세 바다와 마주치는 아담한 골목길이 매력이다. 소담한 벽화 마을로, 인근에서 나는 가리비 껍데기를 이용한 작품은 독특하면서도 이곳의 정취를 더욱 느끼게 해준다.



수협 안내

부경신항수협

055-552-3088~92

가덕도
©부산광역시가덕도 해안산책로
©부산광역시



시소(SEASAW)



1층 해산물 직판장에서 신선한 해산물을 직접 골라 2층 운치 있는 분위기에서 편하게 즐길 수 있다. 1층에서 깨끗하게 해감 및 손질된 해산물과 캠핑용 간편 해산물 세트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하여 구이, 버터, 치즈, 피자 양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맛볼 수 있는 곳이다. 양도 푸짐하다.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산단4로 64번길 8
☎ 051-208-8882

남해달인횃집



숙성회 전문점으로 회는 쫄쫄한 식감과 감칠맛이 돈다. 회를 다시마에 썬 뒤 보릿가루로 덮어 6시간 동안 냉장고에 숙성한 후 단맛과 신맛의 한라봉 식초에 담갔다 뽀 뽀 2시간 동안 다시 냉장 숙성해 만들었다. 기본 반찬이 넉넉하고, 부드러운 달걀 광어전도 별미다.

☎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리로 40
☎ 051-292-8838

소희네집



제철 해산물을 맛깔나게 요리하는 가덕도 맛집이다. 특히 추천하고 싶은 메뉴는 오징어초무침이다. 봄에는 봄동과 함께 버무려져 새콤하고 아삭한 맛을 즐길 수 있다. 여름에는 상추, 오이와 함께 요리된다. 양념게장도 감칠맛이 난다.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해안로 1206
☎ 051-971-8886



대항항 포진지 동굴 탐방

장대한 해안 절벽에 뚫린 일제강점기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는 동굴이다. 해안 산책로를 따라 이어지는 5개의 동굴에는 이색 조형물과 LED 조명등이 설치되어 있다.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항동 산33
☎ 가덕도동행정복지센터 051-970-4638



정거마을 문화거리

정거마을은 놀차도에 있는 해안가 마을이다. 집집마다 그려진 아기자기한 벽화가 인상적이다. 정거마을에서 나는 가리비 껍데기를 이용한 작품도 감상할 수 있다.

☎ 부산광역시 강서구 놀차동 832 정거마을
☎ 가덕도동행정복지센터 051-970-4638

대항 어촌체험

가덕도의 연대산 정상에서 보면 큰 목의 형상이 나타나 대항(大項) 마을이라고 한다. 낚시를 비롯해 전통 송어잡이, 선상 관광, 해양 스포츠 등을 체험할 수 있다.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해안로1207번길 9-2
☎ 대항어촌체험마을 010-3570-1036



세계 3대 공룡 발자국 화석지

공룡의 나라, 경남 고성군. 1982년, 1억 년 동안 깊이 묻혀 있던 '보물'이 세상에 드러났다. 우리나라 최초로 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된 것. 일정한 간격으로 찍힌 발자국을 통해 상족암 일대가 중생대 백악기 공룡의 집단 서식지였다는 것도 밝혀졌다. 그야말로 고성군은 한국의 '쥬라기 공원'이다. 고성공룡박물관은 국내 최초의 공룡박물관으로 공룡의 실제 골격과 고성에서 발견된 발자국 화석, 고대 생물 화석 등을 전시하고 있다. 브라키오사우루스 공룡탑과 토피어리 동산 등 곳곳에 볼거리가 많다. 1억 년 전의 시간과 마주 닿을 수 있는 신비로운 경험이 펼쳐진다.

기암절벽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문수암은 산세가 수려해 신라시대 화랑들이 이곳에서 심신을 연마했다고 전해진다. 산정에 올라 바라보는 한려수도의 섬과 바다가 압권이다.



수협 안내

경남고성군수협

055-673-4162

남포항(수남)위판장

055-673-4165





남포숯불장어구이



숯불에 직접 구워 먹는 장어구이 전문점이다. 원재료를 현지 직송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우선 신선함을 맛으로 느낄 수 있다. 장어는 통통해 씹는 맛이 일품이다. 장어구이도 맛이 뛰어나지만, 장엇국은 집에서 끓인 것처럼 아주 진하고 구수해서 보양식으로 손색이 없다.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공룡로 3031
☎ 055-674-5526

계림새우나라



새우가리비해파리냉채, 새우죽, 새우튀김, 과일새우탕수육, 새우칠리소스볶음 등 새우로 차린 맛의 향연을 즐길 수 있는 새우가리비 코스다. 이 코스의 하이라이트는 최고의 맛과 향을 자랑하는 비단가리비찜이다. 싱싱한 회와 특제 육수로 맛을 낸 물회도 추천한다.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신월로 31
☎ 055-672-4616

본토대가



인생 계장을 맛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가리비장, 전복장, 새우장 정식으로 즐길 수 있으며 모듬세트를 시키면 이 모든 장을 한 번에 먹을 수 있다. 저염으로 숙성해 짜다는 느낌이 전혀 없으며 함께 제공되는 해물된장찌개, 달걀찜도 잘 어울린다.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44번길 17
☎ 055-672-4224



고성 가리비 수산물축제

전국 가리비의 70% 이상이 경남 고성에서 나온다. 고성 가리비 수산물축제에서는 가리비와 굴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가리비뽕을 맛볼 수 있으며 플리마켓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돼 있다.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남포항 일대
☎ 해양수산물 055-670-2453

동화 어촌체험

긴 해안선에서 갯바위낚시를 즐기며, 직접 배를 타고 어장을 둘러보는 선상 체험을 할 수 있다. 공룡박물관, 상족암군립공원 등 볼거리는 물론 갯벌 체험, 바다 숙박도 가능하다.

☎ 경상남도 고성군 하일면 동화1길 203
☎ 동화어촌체험마을 010-4022-2122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세계 3대 공룡발자국 화석지인 고성에서는 2~3년 주기로 공룡엑스포가 열린다. 축제 기간에는 공룡상설전시관을 운영하며, 다양한 문화 공연과 체험 행사가 진행된다.

☎ 경상남도 고성군 회화면 당항포관광지
☎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055-670-3814



모든 풍경이 사랑스러운 미항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심장부, 통영. 점점이 흩어진 푸른 섬, 그림 같은 해안선과 기암괴석, 잔잔한 수면 위에서 춤추는 빛의 조각을 마주하고 있으면 이곳에서는 누구라도 시인이 될 수 있을 것만 같다. 통영케이블카를 타고 우리나라 100대 명산인 미륵산 정상에 오르면 한려수도의 수려한 경관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통영의 시작은 조선 수군의 통제영 설치와 연관된다. 통영이란 이순신과 불가분의 관계. 이순신공원에 오르면 호수 같은 통영항과 한산대첩의 학익진이 펼쳐진 통영 앞바다의 아름다운 풍광을 볼 수 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 동상과 임진왜란 당시 사용된 천자총통이 바다를 향하고 있으며, 푸른 숲과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다. 햇살 머금은 다도해가 반짝이고, 언제나 변함없는 경치가 반긴다.

여행 코스

통영케이블카

해저터널

서피랑마을

Travel Tip

담벼락 곳곳에 아름다운 벽화가 그려져 있는 동피랑 벽화마을은, 각마다 공모전을 통해 새롭게 단장한다. 파란 하늘과 바다, 벽화가 어우러져 마치 야외 미술관 같은 풍경을 연출한다.

동피랑 벽화마을

이순신공원

수협 안내

통영수협

055-650-7810

근해통발수협

055-646-9320

굴수하식수협

055-645-4511

멍게수하식수협

055-647-0610

멸치권현망수협

055-646-2211





멍게가



평범한 듯하지만, 전혀 색다른 맛의 멧게비빔밥. 우선 유기그릇에 담겨 나오는 색이 오방색을 닮아 참 예쁘다. 곱게 채 썬 오이와 김 가루, 달걀지단, 해초들과 멧게의 조합이 벌써 향을 낸다. 기본 반찬으로 나오는 생멸치회무침까지 조화로운 맛을 경험하게 된다.

☎ 경상남도 통영시 동충4길 25
☎ 055-644-7774

미백일식



통영 현지 해산물을 재료로 사용해 신선하고, 주방장의 솜씨가 뛰어난 현지 맛집이다. 다양한 제철 해산물을 한곳에서 맛볼 수 있는 해산물 코스요리 음식점으로 가성비 최고의 일식집이다. 기본 화부터 소라, 문어숙회, 생선구이, 파전, 튀김 세트, 떡국과 초밥까지 훌륭하다.

☎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2로 76-163
☎ 055-648-2201

송이복국



이곳의 복국은 통영의 싱싱한 복어와 해조류를 사용해 전통적인 비법으로 육수를 우려낸다. 감칠맛보다는 시원한 맛을 한층 더 내는 비법이다. 숙취를 풀어내는 데 이만한 음식이 없다. 기본 반찬으로 나오는 멸치회만으로도 밥 한 공기가 가능하다.

☎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안로 221
☎ 055-641-2712



한려수도 굴축제

매년 3월 한려수도 굴축제가 통영시 강구안 문화마당에서 열린다. 굴요리 시식 행사와 굴까기 체험, 굴요리 경연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굴의 매력을 듬뿍 느낄 수 있다.

☎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견내량로 22
☎ 수산과 055-650-5053



통영 한산대첩축제

대승전인 한산도대첩과 이순신 장군의 우국충정을 기리기 위해 1962년부터 매년 8월마다 열리는 축제다. 이충무공 관련 축제 중 최고로 평가받고 있다.

☎ 경상남도 통영시 세병로 27
☎ 문화예술과 055-650-4532

예곡 어촌체험

해안 곡면을 따라 펼쳐진 해수욕장이 있어 여름철 피서객들이 즐겨 찾는다. 일출을 감상하기 좋으며 고동 잡기, 바지락 캐기 등 다양한 어촌 체험이 가능하다.

☎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추봉리 202
☎ 예곡어촌체험마을 055-649-8861



장쾌한 산을 품은 섬

사랑도는 통영의 서쪽에 위치한 섬으로 윗섬(上島)과 아랫섬(下島), 수우도 등 유인도와 크고 작은 무인도로 이뤄져 있다. 윗섬과 아랫섬 사이에 갈지자로 흐르는 해협은 꼭 뱀을 닮았다. 윗섬의 한가운데를 지리산과 불모산, 가마봉, 옥녀봉이 가로지르고 있는데, 공룡의 등뼈 같은 암릉을 따라 산행을 즐길 수 있다. 아랫섬에 있는 칠현산은 일곱 봉우리를 오르내리면서 볼 수 있는 탁 트인 조망이 일품이다. 마주 보고 있는 이 두 섬은 사랑대교로 연결되어 있다.

사랑도 유일한 해수욕장인 대항해수욕장은 푸른 물빛과 고운 모래를 자랑한다. 캠핑할 수 있는 부대 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산과 바다를 함께 누릴 수 있어 여행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 섬 전체가 활기가 넘친다.

여행 코스

사랑대교

최영 장군 사당

대항해수욕장

Travel Tip

사랑도로 가려면 도산 가오치 여객선터미널에서 배를 타면 된다.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2시간 간격으로 운항한다.

담포 옥녀봉

돈지마을

수험 안내

사랑수험

055-642-6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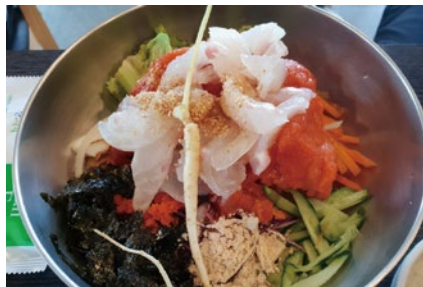
사랑대교
©통영시청



사랑도
©통영시청



우리식당



사랑도 주민이 추천하는 자연산 회 맛집이다. 봄철에는 도다리회, 여름엔 하모회, 가을엔 전어회, 겨울엔 물메기회를 맛볼 수 있다. 통영 앞바다에서 잡는 자연산 회라 싱싱하다. 물회와 멍게비빔밥도 인기 메뉴인데, 곁들이 반찬도 훌륭하다.

☎ 경상남도 통영시 사랑면 진촌1길 48-5
☎ 055-642-6103

금평반점



섬에서 먹는 중국 음식은 어떨까. 낙지와 오징어, 홍합, 꽃게 등 해산물이 가득 들어간 계절짬뽕은 관광객은 물론 현지인의 입맛도 사로잡은 대표 메뉴다. 여타 중국집의 자극적인 짬뽕 국물 맛과는 다르게 홍합 육수 베이스로 심심하면서도 깊은 맛이 난다.

☎ 경상남도 통영시 사랑면 진촌1길 36
☎ 055-642-6024

이정식당회센터



멸치쌈밥과 병어초무침, 물회 등을 맛볼 수 있다. 특히 멸치쌈밥은 현지인들도 자주 찾을 정도로 맛이 좋다. 멸치쌈밥에는 통영의 특산물 멸치가 한가득 들어 있는데 비린 맛이 하나도 안 난다. 호박무침, 달걀찜, 오이김치, 버섯볶음 등 밑반찬도 정갈하게 잘 나온다.

☎ 경상남도 통영시 사랑면 상도일주로 1572
☎ 055-642-8090



사랑도 바다낚시

사랑도는 갯바위낚시와 양식장 주변 배낚시가 유명한 섬이기도 하다. 감성돔, 볼락, 농어, 도다리 등 고급 어종이 풍부해 연중 낚시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 경상남도 통영시 사랑면 일대
☎ 사랑면사무소 055-650-3620



사랑도 옥녀봉 등반축제

사랑도 일대 탐방과 저인망어선 후리끌기 체험, 갯벌 생태 체험, 바다낚시, 굴까기 등을 즐길 수 있다. 10월 옥녀봉 등반 축제 기간에는 가족 단위 여촌 체험도 가능하다.

☎ 경상남도 통영시 사랑면 진촌2길 일대
☎ 사랑면사무소 055-650-3620

대항해수욕장 스노클링

고운 모래사장이 드리워진 대항해수욕장은 여름 해수욕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게다가 수심이 얇고 시설이 두루 갖춰져 있어 스노클링을 즐기기에 좋다.

☎ 경상남도 통영시 사랑면 금평리 대항해수욕장
☎ 대항해수욕장 010-9828-7280



청정한 풍광에 걸음이 느려지는 곳

통영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섬들이 모여 이룬 연화열도(蓮花列島). 통영항에서 뱃길로 1시간, 망망대해에 연화도, 상노대도, 하노대도, 두미도, 초도 등 156개의 섬이 올망졸망하게 떠 있다. 욕지도는 그중에서 가장 큰 섬으로 사시사철 언제 찾아와도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다. 등산과 낚시, 바다 관광과 해수욕을 함께 즐기기에 더없이 좋다.

천혜의 비경으로 가득한 욕지도 동항마을에서 출발해 천왕산 대기봉까지 오르면 연화도, 우도 등 보석 같은 섬들과 해안 절경을 감상할 수 있다. 덕동해수욕장은 한려수도의 맑고 깨끗한 코발트색 바다와 주변의 해안 풍광이 아름다운 곳이다. 모래 해변과는 또 다른 멋을 주는 몽돌이 펼쳐져 있는 곳으로 해수욕과 다양한 해양 레저를 즐길 수 있다.

여행 코스

덕동해수욕장

천왕산

욕지항방파제

Travel Tip

욕지도는 이중섭이 사랑한 섬으로, 1953년 이곳에 머무르면서 '욕지도 풍경'을 그렸다. 이중섭 전망대도 있다.

연화도 용머리

연화도 연화사



수험 안내

욕지수험

055-643-6771~2

활어위판장

055-643-6753



욕지도
©통영시청



삼여도
©통영시청



늘푸른횟집



아침에 갓 잡온 고등어를 그날그날 손질해서 고등어조림, 고등어회 등으로 요리해 상에 올린다. 고등어는 워낙 예민해 신선해 유지가 생명이다. 고등어를 물에서 꺼내자마자 소금을 뿌리고 얼음물에 식초를 풀어 10분 정도 담가 두어 담백하고 비리지 않게 고등어회를 맛볼 수 있다.

☎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욕지일주로 95-6
☎ 0507-1362-6779

바다포차



'고등어회를 맛보러 욕지도 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욕지도는 신선한 고등어회로 유명하다. 그중 바다포차는 싱싱한 고등어가 없는 날엔 문을 안 연다고 호언할 정도다. 살이 통통하게 오른 고등어에서 고소하면서도 묘한 감칠맛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서촌아랫길 110-5
☎ 010-2977-5063

욕지1번가



원고, 투고, 스리고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고등어 요리가 몇 가지 들어가는데 따라 붙인 것인데 고등어 조림과 구이, 회를 먹으려면 '스리고'를 외치면 된다. 욕지도까지 왔는데 고등어회를 맛보지 않으면 섭섭하다. 고등어 특유의 비린내 없이 단단한 육질과 고소함을 느낄 수 있다.

☎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욕지일주로 81
☎ 0507-1431-5855



욕지 섬문화축제

다채로운 체험 행사와 풍성한 먹거리가 있으며 골목길 옛 사진전 등 섬 문화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욕지도 명물인 고등어와 고구마를 맛볼 수 있다.

☎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욕지공공도서관 광장
☎ 욕지면사무소 055-650-3580



유동 어촌체험

좌대낚시 체험, 선상낚시 체험, 건망 체험, 스킨스쿠버 등 시기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과 먹거리, 특산물이 준비되어 있다. 일상에서 벗어난 휴양과 체험을 즐길 수 있다.

☎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유동길 108
☎ 유동어촌체험마을 055-641-2233

욕지도 양식활어(참돔·우럭)축제

축제와 풍어제를 통해 어업인들의 풍어를 기원하고 무료 시식회를 열어 욕지도 수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한다. 화합의 장으로서 관광객들과 어업인이 어울리는 축제의 한마당이 된다.

☎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욕지일주로 178-5
☎ 욕지수협 055-643-6771~2



청정해 수산물이 풍부한 맛의 고장

사천시 삼천포항은 남해 청정 해역에서 잡히는 싱싱한 해산물이 모이는 곳으로 한려수도의 중심 항구다. 자연산 활어, 살아 숨 쉬는 바지락, 죽방렴 멸치 등 풍부한 어종을 자랑하는 '맛의 고장'으로 유명하다. 삼천포항 옆에 위치한 삼천포 용궁수산시장은 50여 년의 역사가 쌓인 전통 어시장으로 싱싱한 횡감을 직접 보고 맛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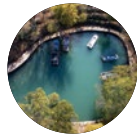
2018년에 개통한 사천바다케이블카는 국내 최초로 산과 바다, 섬을 잇는 형태로, 대방 정류장(바다)에서 시작해 초양 정류장(섬)과 각산 정류장(산)을 지나 다시 돌아온다. 한려해상의 쪽빛 바다와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길로 꼽히는 삼천포대교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다른 한편에서는 남해안의 전통적 어업 방식인 죽방렴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 오직 사천바다케이블카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풍경이다. 굳이 삼천포로 빠져도 좋겠다.

여행 코스

삼천포
용궁수산시장

대방진 굴항

사천바다케이블카



Travel Tip

사천바다케이블카와 아라마루 아쿠아리움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할인 통합권을 판매하고 있다. 통합권 발권은 대방 정류장 매표소에서만 가능하다.



삼천포대교

아라마루
아쿠아리움

수협 안내

삼천포수협

055-830-7300

선어위판장

055-830-7326

삼천포대교
©사천시청사천바다케이블카
©사천시청



삼천포 맛집 정서방



그때그때 사계절의 맛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봄에는 도다리숙국, 멧게비빔밥, 새조개샤부샤부를 주메뉴로 취급하며 여름엔 전복물회, 갑오징어물회, 생선물회, 가을엔 전어회 정식, 하모(갯장어)샤부샤부, 겨울엔 물메기탕 등 남해안의 특산물을 활용한 음식들을 맛볼 수 있다.

☎ 경상남도 사천시 진삼로 269
☎ 055-835-5349

동강횃집



자연산 모듬회를 주문하면 커다란 상이 비좁을 만큼 밑반찬이 나오는데, 하나하나 다 맛있어 주메뉴를 어떻게 먹어야 하나 싶을 정도다. 하지만 그것은 기우임을 곧 알게 된다. 노래미, 도다리, 쥐치, 볼락 등 그때그때 수급 상황에 맞는 회로 찝찝하게 먹는 재미를 선사한다.

☎ 경상남도 사천시 목섬길 75
☎ 055-835-6669

란이식당



삼천포 앞바다에서 나는 싱싱한 해산물을 경매를 통해 공수하고 있다. 갈치, 돌뱅이, 삼치, 볼락, 솜뱅이, 고등어 등 다양한 삼천포의 생선을 맛볼 수 있다. 멸치쌈밥과 생선구이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멸치쌈밥 정식을 추천한다.

☎ 경상남도 사천시 삼천포대교로 310
☎ 0507-1320-4346



삼천포항 자연산 전어축제

팔포매립지 일원에서는 매년 7~8월 자연산 전어축제가 열린다. 다양한 행사와 함께 삼천포 항에서 잡히는 전어의 신선함과 고소한 맛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

☎ 경상남도 사천시 삼천포항 팔포음식특화지구 일원
☎ 팔포음식특화지구 055-832-8568



삼천포 용궁수산물시장 축원제

삼천포 용궁수산물시장에서 열리는 축원제는 시장 상인회가 주관하는 축제다. 관광객과 시민, 상인이 한데 어울려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 경상남도 사천시 어시장길 64 삼천포 용궁수산물시장 일원
☎ 지역경제과 055-831-3062

삼천포대교 해맞이축제

전국 9대 노을 명소인 실안해안도로와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된 삼천포대교에서는 매년 1월 1일 해돋이와 함께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축제가 열린다.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대로 35 삼천포대교공원
☎ 행정과 055-831-2565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도시

바다와 땅, 하늘길이 고루 열린 교통의 요충지 사천은 유람선으로 돌아보는 한려수도의 비경,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다솔사, <별주부전>의 전설이 서린 비토섬, 항공우주박물관과 무지갯빛해안도로 등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이 풍부한 도시다. 그중 사천 9경 중 하나이자 우리나라 9대 일몰지로 꼽히는 실안낙조, 부채꼴 모양의 참나무 말뚝으로 만든 죽방렴과 조각조각 떠 있는 작은 섬, 우두커니 서 있는 등대와 일몰이 어우러져 환상적인 그림을 연출한다.

또한 사천은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메카로, 항공우주박물관은 국가 안보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을 함양하고 첨단 항공우주산업의 기술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만들었다. 야외 전시장에서는 최초 국산 항공기 부활호를 비롯해 무인헬기, 미군 수송기 등 실제 항공기를 가까이서 볼 수 있다.

여행코스

다솔사



다래와인갤러리



항공우주박물관



Travel Tip

다래와인갤러리는 태널을 개조해 지역 특산물인 다래와인을 숙성하는 저장소로 운영하고 있다. 다래와인은 한국 전통주 품평회에서 과실주 부문 금상을 수상해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선진리성·조명군총



무지갯빛해안도로



수협 안내

사천수협

055-854-0545

사천수협 활어유통장

055-854-0544



무지갯빛해안도로
©사천시청



실안 선상카페



엄마손식당



진주 지역에서는 이미 소문난 오래된 맛집이다. 무엇보다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며, 거기에 주방장의 솜씨가 훌륭하다. 물메기탕, 연포탕, 멸치쌈밥, 도다리숙국 등이 대표 메뉴인데, 계절에 따라 다르다. 연포탕에는 낙지뿐만 아니라 조개류가 들어간 것이 특징이다.

☎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903번길 12
☎ 055-758-3898

우마이



소박한 분위기의 소규모 식당이지만, 맛은 고급 일식당과 다르지 않다. 초밥에 싱싱하고 두툽한 횡감을 올려 초밥이 아닌 회를 먹는 듯하다. 숙성회 역시 일품으로 생선의 탱글탱글한 식감이 그대로 살아 있으며, 쫄득하면서 신선한 맛이 입안을 사로잡는다.

☎ 경상남도 진주시 강변길 4
☎ 055-759-3500

앞들식당



재첩국 맛있기로 소문난 식당이다. 달갈말이를 곁들인 낙지볶음도 빼놓을 수 없는 인기 메뉴다. 오동통한 낙지에 특제 양념과 양배추가 듬뿍 들어 있어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일품이다. 아침 식사도 가능한데 이 시간에 먹는 맑은 재첩국과 재첩된장국은 속을 든든하게 채워준다.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옥산로 75
☎ 055-852-3967



삼천포항 수산물축제

남해안의 대표 축제로 매년 4월, 삼천포대교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수산물 깜짝 경매, 생선회 무료시식회 등 매력적인 가을 바다의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다.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대로 35 삼천포대교공원 일원
☎ 삼천포항수산물축제추진위원회 055-833-2747

사천 거북선마을 체험

사천대교 아래 갯벌에서 쏙 잡기, 고동 잡기, 독살 체험 등 어촌 체험이 진행된다. 바다 옆 체험휴양마을에서 진정한 치유와 감동을 경험할 수 있다.

☎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사천대교로 75-61
☎ 사천거북선체험마을 010-7456-0881



비토 국민여가캠핑장

사천시 비토섬에 위치한 국민여가캠핑장은 아름다운 바다와 드넓게 펼쳐진 갯벌, 싱그러운 자연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차량 출입을 통제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다.

☎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용궁로 132
☎ 비토국민여가캠핑장 070-8988-4000



남쪽 바다의 보물섬

사계절 푸른 물결이 하늘거리는 곳이 남해다. 여행하기 좋은 온화한 기후와 수려한 자연경관 그리고 곳곳에 흥미로운 이야기를 간직한 보물 같은 명소가 많아 '보물섬'이라 불린다. 보물섬 남해로 향하는 크나큰 빨간 대문, 최초의 관문이 되어준 남해대교는 1973년 건립된 국내 최초의 현수교로 개통한 지 50년이 된 지금도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 다랭이마을은 푸른 바다를 접한 산비탈을 일궈, 좁고 긴 계단 형태의 다랑논이 있는 마을이다. 경사진 비탈에 아기자기한 집들과 에메랄드빛 바다가 어우러져 있는데, 108층의 다랑논은 한 치의 땅도 놀리지 않겠다는 남해 사람들의 굳센 마음을 엿볼 수 있다. 상주은모래비치는 비단결처럼 부드럽고 은가루처럼 반짝이는 백사장, 투명하고 깨끗한 바다 그리고 운치를 더해주는 울창한 송림으로 둘러싸여 언제 가더라도 아름다운 해변이다.

여행
코스

남해대교

이순신 순국공원

다랭이마을

용문사(남해)

Travel
Tip

이순신 순국공원은 노량해전에서 순국한 이순신 장군과 수군을 기리기 위해 건립했다. 노량해전 당시의 모습을 4,000여 장의 분청 도자기에 그려낸 초대형 벽화인 순국의 벽이 최고의 볼거리다.

상주은모래비치

남해 독일마을

수협 안내

남해군수협

055-867-6524

수산물직매장

055-867-7305

선어위판장

055-867-6526

상주은모래비치
©남해군청문항여촌체험마을
©남해군청



재두식당



남해 대표 메뉴인 멸치조림쌈밥 전문점으로 비린 맛이 전혀 없는 멸치조림쌈밥이다. 맵기도 적당해 누구라도 거부감 없이 맛볼 수 있다. 식사가 끝날 즈음에 나오는 부드러운 춘두부도 별미다. 특히 직접 만든 수제 도토리묵은 탱글탱글함과 쫄깃쫄깃함이 만족스럽다.

☎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남해대로 918-6
☎ 055-862-6022

배가네멸치쌈밥



죽방멸치를 활용한 멸치쌈밥, 멸치회를 즐길 수 있다. 남해 죽방멸치는 남해 지족해협이 거친 물살 덕에 탄력이 좋은 멸치를 원시조업 방식인 죽방렴을 통해 수확해 쫄깃함의 차원이 다르다. 특히 멸치회는 뼈를 직접 발라내고 특별한 비법으로 비린 맛을 잡았다.

☎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773
☎ 055-867-7337

청해삼소리정



돌게장과 멸치 요리의 정석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다. 청해게장 한정식, 청해쌈밥 한정식이 대표 메뉴다. 청해게장 한정식은 멸치회무침, 돌게장, 고등어구이, 돌게된장찌개와 각종 밑반찬으로 구성되는데, 푸짐한 한 상을 맛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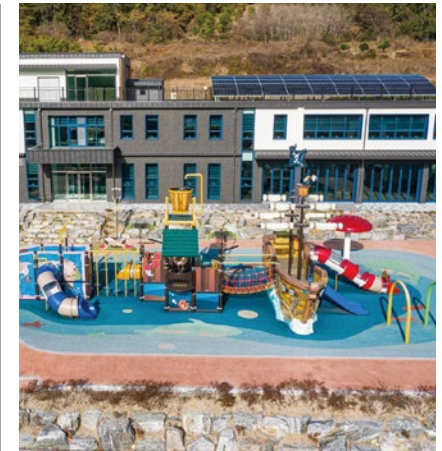
☎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329
☎ 055-867-6007



문항 어촌체험

쏙잡이 체험, 바지락 캐기, 선상낚시, 낙지 잡기, 후릿그물 체험 등이 진행된다. 가족 단위부터 단체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다.

☎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강진로206번길 54-19
☎ 문항어촌체험마을종합안내소 055-863-4787



뮤지엄 남해

뮤지엄 남해는 남해군 동창선에 있는 폐교를 개조해 탄생한 복합문화공간이다. 온·오프라인으로 연령별 미술교육, 예술 체험을 진행하며 캠퍼장도 운영하고 있다.

☎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연곡로 13
☎ 뮤지엄 남해 055-867-2021

갈화 왕새우축제

갈화항에서 열리는 '보물섬 남해 갈화 왕새우 축제'. 소규모 마을에서 열리는 축제지만 새우 맨손잡기를 비롯한 재미있는 체험과 먹거리, 공연 등이 알차게 준비되어 있다.

☎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갈화항 일원
☎ 관광진흥과 055-860-8604



정다운 사람들, 정겨운 풍경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화개장터가 더 유명한 하동군. 노랫말 덕분이다. 하동은 북쪽의 지리산과 서쪽의 섬진강, 그리고 남쪽으로 한려해상국립공원의 남해를 아우른다. 산과 강, 바다까지 갖춘 곳이지만, 하동은 섬진강을 낀 구간을 알아준다. 지리산 맑은 물이 흘러 내려와서 섬진강과 만나는 곳에 자리한 화개. 화개장터는 광복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5대 시장 중 하나로 전국의 어느 시장보다 많은 사람으로 붐비던 곳이다. 화개장터에서 쌍계사까지 이어지는 도로변은 봄날이면 환상적인 벚꽃 터널을 이룬다.

하동 알프스 집와이어를 탑승하면 하동의 자연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발밑으로 펼쳐진 금오산 자락과 바다 전망을 바라보면서 색다르게 하동을 경험할 수 있다. 있을 건 다 있는 하동으로 구경 한번 떠나보자.

여행 코스

화개장터

최참판댁

하동송림

Travel Tip

최참판댁은 박경리 대하소설 '토지'의 무대가 된 곳으로, 하동군이 소설의 무대를 현실에 재현한 공간이다.

하동 알프스
집와이어

삼성궁

수험 안내

하동군수험

055-883-9710

노량위판장

055-883-9715



섬진강
©하동군청



하동 알프스 집와이어
©하동군청



동흥재첩국



인근 섬진강에서 바로 채취한 신선한 재료를 사용해 맛이 뛰어나다. 주메뉴뿐만 아니라 깔끔한 기본 반찬도 맛있다. 3대째 이어온 재첩 전문점으로 재첩 맛과 정갈함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곳이다. 재첩회, 재첩국, 어떤 음식을 선택해도 후회하지 않는다.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94
☎ 055-883-8333

보신정참게탕



섬진강에서 갯 잡은 싱싱한 참게로 요리하는 게요리 전문점이다. 정식을 주문하면 재첩국과 참게장, 재첩회를 즐길 수 있다. 하동의 특산물인 매실로 만든 장아찌가 밑반찬으로 나오는데 입맛을 돋운다. 기본 밑반찬도 정갈하다.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2564
☎ 055-882-8998

해성식당



하동의 명물 참게와 은어, 재첩 요리 전문점이다. 은어를 통째로 밥 위에 얹은 은어돌솥밥이 인기다. 고소하면서도 단맛이 감도는 은어돌솥밥에 시원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재첩국은 환상의 조합이다. 칼칼하고 깊은 국물 맛이 좋은 참게탕도 추천한다.

☎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화개로 48
☎ 055-883-2140



참송어축제

노량해협의 거센 조류에서 자란 참송어를 즐기는 축제로 11월 중순 하동군 금남면 일원에서 개최된다. 전통적인 흘치기 방식으로 잡은 참송어를 만날 수 있다.

☎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노량해안길 23
☎ 하동군수협 055-883-9710



하동 섬진강문화 재첩축제

섬진강의 문화와 하동 재첩을 결합해 만든 축제로 송림공원과 섬진강에서 개최된다. '섬진강! 황금 재첩을 찾아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2107-8
☎ 알프스하동섬진강문화재첩축제추진위원회 055-880-2052

대도 어촌체험

다양한 어종이 잡히는 섬진강 하구에 위치한 대도는 '아름다운 어촌 100선'에 선정됐다. 낚시를 하러 연간 4,000여 명의 낚시 마니아들이 찾는 곳이다.

☎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대도리 98
☎ 대도어촌체험마을 010-2578-3148

